

챙김이네 평가서

시간표 작성과 관련하여

시간표 작성의 원칙

--1,2학년을 공략하라

그러하다. 3,4 학년은 선거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한다. 실제 수업에 들어가도 별로 경청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2:1이나 3:1 상대나 공대, 법대, 뭐 그런데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말썽이나 글썽, 교양영어 등의 필수교양을 모두 공략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이었다.

--주력단대 설정, 포기할 곳은 과감히

이번 주력단대는 그간 패배를 거듭해왔던 이과대, 감을 잡을 수 없는 생과대, 광범위한 산포도로 공략에 어려움이 많다고 정평이 난 공대였다. 문대는 여학생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업을 비교적 많이 배치했지만 세 후보가 나오는 관계로 목숨까지 걸지는 않았다. 여기서는 삼분지 일을 최소의 목표로 삼았고, 정후보의 인품을 믿었었다. 사람이 많은 과(사회, 심리, 영문)을 많이 들어갔으며 각 전공 기초는 대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그렇다고 사람이 꼭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불문과 교수님들은 무섭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다.)

생과대의 경우 수업을 많이 배치했다. 그러나 이 단대의 특성상 실습이 많고 강의 당 학생 수가 많지 않아 한 시간당 여러 곳을 들어가면 좋다. 하지만 아무리 적다하여도 전교의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사람이 많으므로 절망할 건 없다.

이과대는 이과대 여휴와 여학생이 많다는 실사 결과에 따라 배치했다. 이과대는 과방보다는 여휴를 노려야 하며 특히 이과대 실사는 철저해야 하니 평소 이과대 생과 친하게 지내길 바란다. 이는 사과대 문대 법대를 제외한 모든 단대 실사를 할 짝에 모두 문제가 되었다.

공대의 경우 수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수업 끝나고 다음 수업 시작하는 틈을 타서 각종 리플렛과 자료집을 뿌리는 전략이 아주 유효했다. (웬지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후보는 시간을 내어 공대를 방문하도록 한다.

의치의 경우 의예과의 전공기초를 배치했으며 본과의 경우 그들의 채플을 노린다. 그곳의 수업은 매시 30분에 시작한다. 간대의 경우 수업이 학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즈음에 네 번만 들어가도 좋다.

그리고 이번 포기한 단대는 상대, 음대, 신대 (잘 생각이 안난다. 좀 더 있다.)하지만 의외로 상대에서 승리를 거두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상대의 경우 수업을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챙김이 모집의 실패와 해결방안

구두로 하겠다. 사람들이 기다린다.